

오늘 처음 출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 2월 세대통합가족예배 오늘 11시 분당, 교회학교와 연합으로 드립니다.
* 9시 예배와 찬양예배는 없습니다.
특별 찬양 - 바리톤 조태훈 집사
특별 연주 - 김가은 박지인 백재흠 백정흠 홍가영

2. 공동의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안건 - 위임목사투표

3. 주간 전도팀 특강 7(화) 오전 10시, 새 가족부실

4. 구역장·권찰훈련 모임 수 오후 8시 40분, 토 오전 6시 10분 찬양대실

5. 더 드림(The Dream) 헌금약정 교회의 장기 비전을 위해 적립되는 헌금입니다.
형편과 믿음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부서 겨울행사안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2. 17(금)~19(주), 교회, 테딘 워터파크(토)
- ②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2. 24(금)~25(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 위임목사제도

담임목사는 임시목사와 위임목사가 있습니다.

조직교회(당회구성)의 경우, 안정적인 목회사역을 위하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아서 목사가 안정적으로 목회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위임제도입니다.

- 위임목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헌법 제27조 1항)

- 위임 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28조 2항)

- 공동의회 회원: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자(헌법 제 90조 1항)

- ◆ 더드림(The Dream)헌금 온라인 계좌번호 농협 351-0894-6839-03 (예금주: 행복한교회)
- ◆ 주차 주일 예배 시 주차는 교회 앞 차도와 보건지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 소식

1. 새 가 족 임미영 - 느리울 13단지, 6구역, 4여전도회

◆ 주일 봉사

다 음 주(2.12)	식 사 - 7구역	미 화 - 8구역	섬김의 일꾼
-------------	-----------	-----------	--------

담임목사	신 승 헌		
장 로	김진훈	엄명섭	전 도 사 송진일, 송민권, 차경아
지 휘	최종길	백학기	반 주 조나현, 유정선, 엄지영, 차지연, 박지인

세대통합가족예배

여 는 찬 양	꿈꾸는 찬양팀
▷환 영 인 사	다같이
▷기 원	인도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경배와 찬양	마라나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대 표 기 도	엄명섭 장로
교 회 소 식	신승헌 목사
성 경 봉 독	창 1:27-28(구약 2면), 요 15:12-17(신약 173면)
특 별 찬 양	찬송가 465장 - 바리톤 조태훈 집사
말 씬 선 포	하나님의 형상 친구를 위하여
특 별 연 주	내 진정 사모하는, You raise me up(악기합주)
▷응답의 찬송	86장(봉헌과 함께)
▷봉 헌 기 도	신승헌 목사
▷축 도	신승헌 목사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은 본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 쪽 헌금함에 봉헌해 주십시오.

다음주 기도: 1부 강재기 집사 / 2부 도형지 권사

❖ 찬양 예배

오늘은 세대통합가족예배로 쉽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새벽 기도회

월 ~ 토 오전 5시 10분
성경본문 누가복음 5~7장

❖ 향기로운 예물

주일헌금 강이래 강이채 강재구 구경희 권상만 김명신 김명옥 김미화 김서윤 김선희 김성무 김영자 김준영 김진훈 김현숙 김혜련 김혜슬 남춘임 노만순 무명6 문명희 박인용 백학기 송민권 송진일 신승헌 양하은 양해룡 엄명섭 엄지영 엄지예 오광진 이명옥 이재순 이현순 임미영 임선옥 임순택 임순옥 장인희 전선경 정서희 조선구 조양현 조옥형 차경아 차명신 최경숙 최경자 최소영 최슬비 최예람 최은경 최종길 한봉순 홍정의

십 일 조 강재구 구경희 금일 김명신 김성무 김영옥 남춘임 오광진 이가영 이명옥 이선영 조옥형 차경아

감사헌금 구가영 김명곤 김진훈 김현숙 무명 박해봉 양수진 이미라 이영애 조성희 신혜연

건축헌금 (더드림) 권상만 김성무 김지훈 김현숙 남춘임 송민권 송진일 엄명섭 엄지영 엄지예 오광진 이명옥 조선구 조양현 차경아

절기헌금 (신년감사) 김형교

선교헌금 김명신 송진일 오광진 임선옥 정서희

장학헌금 최단비 최한솔

성미헌금 김명옥 김현숙 문명희 최경숙

일천번제 구가영 구민경 구하라

❖ 구역 예배 교안

6. 보시기에 좋았더라

신앙고백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찬 송 “참 아름다워라”(새 478장, 통 78장)

기 도 담당자

오늘의 말씀 창세기 1 : 1~31

성경말씀 경청하기

성경의 첫 장, 첫 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천지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를 즉각적인 결단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목적과 질서의 세계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우연과 혼돈의 세계 속에서 살 것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혼돈(카오스)을 질서(코스모스)로 바꾸어 놓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무한 것을 질서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셨으며, 또한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제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1절).

2)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31절).

성찰하기

비행기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던 김 집사는 물끄러미 바라보던 옆 좌석의 치과의사가 자신을 소개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성경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김 집사는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요.” 그러자 의사는 못마땅하다는 듯 “그럼 그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라고 통명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집사는 미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훌륭한 치과의사님이 계신데 왜 치아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러자 그 의사는 “내가 의사면 뭐합니까? 그 사람이 치과에 와야 진찰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집사는 성경을 다시 펴며 말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으신 분이셔도 하나님께 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인생은 고해(苦海)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소망의 바다’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고전 13:12) 라고 말합니다. 마치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때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지만 다 맞춰진 다음에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이루어질 때를 기대하며 내 앞에 놓은 한 조각의 퍼즐을 기도하며 맞추어 가야 합니다.